

최근 經濟動向

李 揆 哲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조정실 법제과〉

I. 주요업종별 동향

◇ 자동차

금년 3월중 자동차 생산은 계속되는 內需 침체와 재고누적에 따른 업체들의 조업단축, 부품업체의 자금난 加重 등으로 대우중공업의 신형 승용차 Matiz의 出市에도 불구하고 전년('97) 동월대비 42.7% 감소한 15만 6천대에 그쳤다.

이처럼 內需는 경기침체의 持續과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불안심리의 가중, 走行稅制의 도입으로 인한 유가인상에 대한 憂慮 및 소비자들의 구매심리 위축의 장기화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9.3% 감소한 91천대에 머물렀다. 승용차에 있어서 輕型車는 신형 아토스의 加勢로 전년 동월대비 12.3% 감소하였으며, 小型은 65.8%, 中型 25.7%, 大型 80.6%, 다목적형은 33.2%로 각각 감

자 동 차 (台, %)

	1997. 3월			1998. 3월			'98. 1-3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産	272,219	23.5	8.8	155,908	25.1	△42.7	436,367	△22.9
• 出 荷	231,822	22.7	△1.9	175,698	42.3	△24.2	392,428	△27.2
(內 需)	119,810	10.2	△9.1	90,711	23.9	△49.3	154,799	△49.4
(輸 出)	112,012	39.5	7.1	114,987	54.4	2.7	237,629	2.0

자료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소하여 승용차 전체적으로는 전년동월대비 49.7%가 감소한 43천대가 판매되었다. 자동차 수출은 내수부진에 따른 업체들의 수출증대 노력, 환율 여건개선에 따른 가격경쟁력 회복, 新車種의 개발·투입 등에 힘입어 해외 현지 재고조절, 동남아 국가의 경기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2.7% 늘어난 115천대를 기록하였다.

◇ 전기·전자

금년 3월중의 전자산업 수출은 산업용전자와 가정용전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이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전년동월대비 2.0% 늘어난 3,346백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3월까지의 누계로는 전년동기와 비슷한 9,310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 산업용전자의 수출이 컴퓨터주변기기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대비 1.2% 감소한 756백만달러를 기록하였고, 가정용전자의 수출도 칼라 TV 등 영상기기와 음향기기의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10.4% 감소한 549백만 달러에 그쳐 지난해 2월 이후의 감소세가 이어 졌다.

반면, 전자부품의 수출은 반도체, 전자관 등의 好調로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한 2,041백만달러에 달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은 D램, S램 등 메모리 제품과 非메모리

제품 모두 활기를 띠면서 전년동월대비 13.7% 증가한 1,455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국내 시스템통합(SI)업체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2000년 年度表記 문제 (Y2k)', 一名 밀레니엄버그(millennium bug)의 解決을 위해 海外 솔루션(Solution)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構築을 모색하고 있다.

전 자 (백만불, %)

	1997. 3월			1998. 3월			'98. 1-3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전 체	3,280	15.1	△15.7	3,346	8.1	2.0	9,310	0.6
(산업용)	765	16.4	22.1	756	7.0	△1.2	2,136	0.9
(전자부품)	1,901	16.3	△26.6	2,041	8.5	7.4	5,722	6.5
(가정용)	614	10.0	△8.5	549	8.1	△10.4	1,452	△17.6

◇ 일반기계

3월중 국내 기계수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發注가 모두 전반에 걸쳐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50.6% 감소하였다. 특히, 公共部門에서는 작년 3월 발주된 지하철과 원자력 발전설비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83.3% 감소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자동차 △34.1%, 기타 제조업 △60.9%, 화학제품 △73.4% 등으로 기계수주 발주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3월중 일반기계 수출은 업계의 수출 확대노력과 가격경쟁력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시장으로의 수출 부진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9.9% 감소한 685 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機種別로는 섬유기계, 금속공작기계와 화학기계가 전년 동월에 比하여 각각 129.1%, 87.6%, 59.0% 증가하여 수출을 주도하였으며 운반 하역기계와 농기계는 각각 44.8% 및 6.1% 감소하였다.

기계輸入은 금융기관에서의 수출입금융 梗

塞과 경기침체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현상이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51.9% 감소한 695 백만달러를 기록하였는데 기종별로는 제지인쇄기계가 88.7% 감소하였으며 건설광산기계, 금속공작 기계가 전년동월에 비하여 72.5%, 63.7% 감소하는 등, 섬유기계, 농기계, 운반 하역기계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하였다. 일반기계산업의 3월중 무역적자는 환율상승에 따른 기자재 구입의 어려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97.8% 감소하여 15백만달러로 축소되었다.

기계류의 국내수주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수입이 激減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해외시장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내수침체·수출증대의 兩極化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기계 (百萬달러, %)

	1997. 3월			1998. 3월			'98. 1-3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수 출	760	54.0	10.8	685	22.7	△9.9	1,705	△0.5

◇ 철 강

철강은 계절적 성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작년의 성수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진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98년 3월중 조강 생산량은 3,521천M/T으로서 전년동월대비 2.4% 감소하였다. 轉爐 部문의 粗鋼 생산량은 전년동월과 비슷한 2,127천M/T이었으나 가동률을 낮추고 있는 전기로 部문의 조강 생산량은 1,394 천M/T으로서 전년동월대비 6.6% 감소하였다. 1/4분기중 조강 생산량은 생산 시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가동률 低下의 지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0.6% 증가에 그친 10,163천M/T을 기록하였다.

鐵鋼材의 내수 판매는 봄철의 도래와 함께 그간 밀려 있던 工事が 再開된데 힘입어 철근, 강관 등 일부 품목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냉연강판, 열연 강판 등 대부분의 철강재 내수는 여전히 부진함을免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전체적으로 건설, 자동차, 家電 등 주요 수요산업이 침체되어 철근, 강판, 냉연강판, H 形鋼 등의 내수판매는 25~55% 감소하였다. 업체들이 내수 부진을 補充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출증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3월중 수출은 860백만달러로서 전년동월대비 59.4%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景氣가 침체된 일본, 동남아 수출이 부진한 반면 경기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 유럽에 대한 輸出이 크게 늘어났다.

철 강 (千M/T, 百萬달러, %)

	1997. 3월			1998. 3월			'98. 1-3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粗鋼生産	3,608	19.2	5.0	3,521	8.4	△2.4	10,163	0.6
輸 出	539	△3.0	8.6	860	32.0	59.4	2,022	27.5

註: 수출은 통관기준임
資料: 한국철강협회 및 한국무역협회(KOTIS Data)

◇ 석유화학

금년 3월중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최근 完工된 설비의 가동으로 생산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산업경기의 침체로 내수 부진이 뚜렷해져 IMF 자금지원체제하의 급격한 경기위축을 反映하고 있다. 우선 생산은 97년중 完工된 설비의 추가 가동으로 전월대비 11.8%, 전년동월대비 13.4%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1,191천톤에 달하였다.

반면, 내수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위축에 따른 소비감소와 加工業界의 자금사정 惡化 및 不實化로 因한 구매력 弱화로 전년동월대비 10.7% 격감하였다.

품목별로는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내수가 자동차, 전기전자 및 기타 생활용품 등 수요산업의 생산 감소와 수요업체의 부실화로 전년

동월대비 각각 25.2%, 18.5% 감소하였다. 합성원료의 경우에는 폴리에스터 등 화섬부문 수요의 상대적 호조와 신규 진입한 업체들의 시장점유율 提高를 위한 판촉강화에 힘입어 3월중 내수가 전년동월대비 3.9% 증가하였음에도 신장세는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증가와 내수 부진으로 공급과잉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업계에서 수출 확대에 총력을 傾注함으로써 수출물량은 합성수지, 합성원료 및 합성고무 등 3대 誘導品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63.1%의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수출물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채산성은 전반적으로 惡化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3월중 수출금액은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수입 수요의 鈍化와 아시아 域內的 공급과잉에 따른 국제가격 하락 및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국의 가격하락 壓力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8.1% 증가에 그쳐 수출 물량의 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석유화학 (千M/T, %)

	1997. 3월			1998. 3월			'98. 1-3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生産	1,050	9.7	11.9	1,191	11.8	13.4	3,376	10.5
・出荷	997	4.9	12.1	1,136	6.0	13.9	3,274	11.6
(內需)	664	8.1	15.8	593	12.0	△10.7	1,762	△8.5
(輸出)	333	△0.9	6.0	543	0.1	63.1	1,512	50.4

◇ 비금속광물

3월중 시멘트 내수는 계절적으로 건설공사가 활발해 지면서 전월대비로 64.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공사의 부진으로 전년동월에 比하여 22.2% 감소한 4,378천 M/T을 기록하였다. 생산에 있어서도 제조업체들이 정상조업에 들어가면서 전월대비로는 58.8% 증가하였지만, 내수 부진에 따라 전년동월대비로는

14.6% 감소한 4,155천 M/T에 머물렀다

수출은 전월대비 12.2% 증가하였으나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향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장인 아시아지역의 수요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38.7% 감소한 46천 M/T을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2천 M/T으로 전월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에 비하여는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在庫는 내수가 전월보다 증가함에 따라 전월보다 14.8% 감소한 1,487천 M/T을 기록하였다. 한편, 1/4분기중 시멘트 수요와 공급은 전년동기에 비하여 20%이상의 높은 감소세를 보였으며, 내수는 8,855천 M/T으로 23.4%, 생산은 9,232천 M/T으로 22.1%, 수출은 111천 M/T으로 97.8% 감소하였다.

비금속광물 (千M/T, %)

	1997. 3월		1998. 3월		'98. 1-3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期比			
• 生産	4,865	46.6	9.5	4,155	58.8	△14.6	9,252	△22.1
• 出 荷	5,700	91.0	18.6	4,424	63.4	△22.4	8,966	△23.7
(內 需)	5,625	91.5	19.4	4,378	64.2	△22.2	8,855	△23.4
(輸 出)	75	56.3	21.1	46	12.2	△38.7	111	△43.4

◇ 섬 유(纖維)

3월중 국내 섬유산업은 화섬F絲의 직수출 감소세가 反轉되고 주 품목인 직물류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냄에 따라 전체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섬유수출은 가격경쟁력을 회복한 의류 등 섬유제품류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품목인 화섬직물의 감소세 심화와 그 동안 증가세를 보였던 화섬F사의 감소세 반전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2.4% 감소한 1,503백만 달러에 그쳤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輸出單價도 섬유사는 20%, 직물류 및 섬유 제품류는 10% 정도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관련 수출업계의 채

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섬유원료의 경우 Polyester Staple Fiber의 수출단가 회복으로 困한 수출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반전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한 83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섬유사는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부진 심화로 현지 製織業體들의 주문량이 급격히 줄어 그 동안의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서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한 165백만달러에 머물렀는데, 특히 Polyester F絲의 경우, 대만업체들과의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수출단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또한 직물류는 편직물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섬직물의 감소세가 대폭 확대되어 전년동월 대비 8.3% 감소한 847백만달러에 그쳤으며, 화섬 제품류는 수출경쟁력 회복과 내수 의류 업체들의 수출전환 노력으로 전년동월 대비 9.9% 증가한 408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화섬F사, 편직물의 수출이 대폭적으로 늘고 있는 미국, EU등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섬유사 및 화섬직물의 수출부진이 확대되고 있는 일본, 홍콩 등에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도 감소세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섬유류 수입에 있어서는 내수시장의 침체와 최근의 환율급등으로 섬유류 전품목에서 감소세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44.4% 감소한 243백만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섬 유 (US\$백만, %)

	1997. 3월		1998. 3월		'98. 1-3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期比			
수 출	1,540	20.9	4.8	1,503	18.4	△2.4	3,914	△4.7
섬유원료	79	5.4	3.5	83	17.9	4.5	219	△7.0
섬유사	166	12.5	38.2	165	2.6	△0.8	471	3.6
직 물	924	26.1	7.7	847	21.7	△8.3	2,141	10.3
섬유제품	371	8.9	△10.8	408	19.4	9.9	1,083	5.2

◇ 조 선 (造船)

3월중 국내 조선업계의 受注量은 점차 회복기미를 보이는 국가 信認도와 적극적인 수주활동의再開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13.8% 감소한 12척, 468천 G/T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3월까지의 수주량은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등,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54.6% 감소한 21척, 923천 G/T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중형조선소 및 소형조선소의 수주실적은 쉘無한 상태이다.

3월중 수주내용을 선종별로 구분하면, 탱커의 수주가 10척, 499천 G/T을 기록함으로써 전체 수주량의 54.1%를 占하였고, 자동차운반선, 벌크캐리어, 貨物船의 수주가 각각 186천 G/T, 132천 G/T, 53천 G/T로 나타나 20.2%, 14.3%, 5.7%의 수주 占有比를 보였다. 3월중 建造實績은 안정적인 일감확보와 설비확장을 완료한 기업들의 正常稼動으로 전년동월대비 7.2% 증가한 10척, 584천 G/T을 기록하였으며, 3월까지의 총 건조량은 충분한 수주잔량으로 전년 동기대비 17.9% 증가한 1,549천 G/T을 나타내었다. 3월말 현재 수주잔량은 전년동월대비 31.0% 증가한 297척, 17,637천 G/T으로써 앞으로 약 2년간은 비교적 안정적인 작업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97년 컨테이너船의 발주실적은 총 131척, 237천 TEU으로써 '96년의 327척, 562 TEU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5천 TEU급 이상의 컨테이너船이 11척, 62천 TEU가 발주되어 전년대비 척수(隻數) 22%, 物量基準으로는 13.6% 증가하였으나, 3천 TEU級의 受注는 크게 떨어져 전년 대비 85.8% 감소한 14천 TEU를 기록하였다. 국가별로 발주량을 보면 독일이 전세계 발주량의 34.2%인 45隻 67千, TEU로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위로는 台灣의 에버

그린사를 중심으로 8隻, 43千 TEU, 3위로는 덴마크 머스크라인의 8隻 24千, TEU, 4위로는 스위스의 MSC 8隻, 18千 TEU를 각각 기록하였다.

조 선 (千G/T, %)

	1997. 3월		1998. 3월		'98. 1-3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受注	543	△60.3	362.0	468	2.9	△13.7	923	△55.2
• 建造	545	14.7	△57.6	584	3.9	7.2	1,549	17.9
• 受注殘量	13,461	0.0	4.6	17,637	△0.5	31.0	17,637	31.0

◇ 해 운 (海運)

금년 3월중 乾貨物 종합지수 MRI는 전월의 217.2에서 2.3포인트 오른 219.5를 나타냈는데 이는 '97년의 평균치 248.8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Cape-size級은 대서양/태평양 航路에서의 철광석, 석탄 등의 貨物부족으로 船腹需要가 감소하여 弱勢가 지속되었다. Panamex級은 3월초와 3월 중순에 대평양 航路에서 強勢를 보인 반면, 대서양 水域에서는 弱勢를 보였는데, 이는 미국 항로의 수출증가로 세계 物動量이 미국으로 集中된 데다 大西洋 항로는 미국 中心의 配船으로 선복량 과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Handysize級 備船市場의 경우는 3월초 및 중순에 브라질 선적 유럽行 穀物需要 및 파나마 운하의 흘수 제한 영향에 따라 需要가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걸프(Gulf) 수역내의 선복과잉으로 因해 운임상승까지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3월 중순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선복수요에 따라 극동지역에서는 新型船을 중심으로한 운임이 강세를 보였다.

탱커 운임지수 WS는 前月の 64.1보다 8.3포인트 증가한 72.4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0년만의 低油價로 운임이 急騰하는 등 호조를 보였다. 原油의 需要 自體는 크게 늘어나

지 않았으나, 低油價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 회사들에 의한 先取賣買로 선복수요가 急増했기 때문이며, 또한 産油國의 減産 合意履行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VLCC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어서 당분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豫想된다.

Ⅱ. 대외거래(對外去來)

1. 수출(輸出)

금년 4월중 輸出은 화공품, 철강제품, 선박 등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6.6% 증가한 121.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4월중 수출신용장(L/C) 來到를 보면, 화학제품의 7.0%를 제외한 철강 $\Delta 4.5\%$, 금속제품 $\Delta 38.8\%$, 전자기기 $\Delta 67.6\%$, 섬유류 Δ

30.0% 등 주요 품목에서 不振함을 보여 전년 동월의 59.2억달러에 비해 5.6% 감소한 55.9억달러를 기록하였다. 暫定 集計된 3월중 품목별 수출을 보면, 경공업 제품은 5.9% 증가(귀금속을 제외하면 $\Delta 1.3\%$)하여 전월의 37.2%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둔화하였는데 이는 종이류, 타이어·튜브 등에서는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섬유류, 신발류 등에서는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金 輸出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귀금속 수출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화학제품은 화공품(16.0%), 금속제품(34.9%), 선박(61.1%), 등 주요 품목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자동차($\Delta 12.0\%$), 기계류($\Delta 7.4\%$) 등은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은 전월의 12.3%보다 다소 둔화된 7.4%로 나타났다. 이로써 3월중 全體 수출은 6.6% 증가한 120.8억 달러에 이르렀다.

品 目 別 輸 出 (通關基準, 억달러, 前年同期對比, %)

	97. 3		97. 1~3월		98. 2月		3月pJ		98. 1~3月pJ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食料및消費財	2.6	$\Delta 7.1$	6.8	$\Delta 4.1$	2.2	13.2	2.3	$\Delta 10.1$	6.4	$\Delta 6.4$
原料 및 燃料	7.3	65.3	19.6	62.4	8.7	39.0	7.7	5.0	23.9	22.2
輕工業製品	28.2	5.2	74.0	2.3	31.2	37.2	29.8	5.9	83.4	12.7
織 維 類	14.7	5.5	39.0	3.3	12.1	$\Delta 0.0$	14.3	$\Delta 2.9$	37.2	$\Delta 4.6$
신 발 類	0.6	$\Delta 23.5$	1.7	$\Delta 24.6$	0.4	$\Delta 32.0$	0.5	$\Delta 17.0$	1.2	$\Delta 30.1$
타이어·튜브	1.3	$\Delta 12.1$	3.2	$\Delta 15.8$	1.2	21.7	1.4	10.4	3.6	12.3
貴 金 屬	5.7	18.9	14.0	8.8	12.3	195.0	7.6	32.3	25.7	83.4
重化學工業製品	75.2	$\Delta 9.3$	196.9	$\Delta 11.9$	70.4	12.3	80.7	7.4	209.5	6.4
化 工 品	6.9	5.8	19.2	4.7	7.2	13.6	8.0	16.0	21.7	13.2
金 屬 製 品	7.1	16.0	20.4	15.3	7.8	14.0	9.6	34.9	23.8	16.9
機 械 類	15.1	15.1	38.1	7.8	12.4	8.9	13.9	$\Delta 7.4$	37.5	$\Delta 1.4$
電氣·電子製品	19.5	$\Delta 15.9$	56.1	$\Delta 16.8$	20.2	17.8	22.3	14.4	61.6	9.9
自 動 車	10.6	10.9	22.8	$\Delta 9.7$	7.0	$\Delta 9.0$	9.3	$\Delta 12.0$	21.2	$\Delta 7.0$
船 舶	3.9	$\Delta 57.6$	8.3	$\Delta 45.7$	4.0	33.5	6.2	61.1	12.3	48.5
統 計	113.3	$\Delta 3.1$	297.2	$\Delta 5.6$	112.5	20.1	120.8	6.6	323.1	8.7

註: 관세청 분류기준에 의한.

2. 수입(輸入)

4월중 輸入은 국내 경기의 침체에 따른 消費, 投資 등 내수위축과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품의 가격경쟁력 弱化,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 등으로 자본재, 소비재 및 원자재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여 전년동월의 128.0억 달러에 비해 35.6% 감소한 82.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4월중 수입신용장(L/C) 開設은 모든 품목에서 전월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원유 $\Delta 46.2\%$, 기계류 $\Delta 67.7\%$, 양곡 $\Delta 35.3\%$ 등의 주요 품목에서 감소가 두드러짐에 따라 전년동월의 107.8억 달러에 비해 49.9% 감소한 54.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3월중 잠정 집계된 품목별 수입을 살펴보면, 食料 및 소비재($\Delta 39.0\%$)는 국내 소비위

축으로 직접소비재($\Delta 43.2\%$), 非耐久소비재($\Delta 62.2\%$), 내구소비재 (38.3%), 등 거의 전 품목이 크게 감소하였고, 자본재($\Delta 36.0\%$)도 기계류 $\Delta 50.5\%$, 전기전자 $\Delta 14.8\%$, 수송장비 $\Delta 59.3\%$ 등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원자재($\Delta 35.1\%$)도 原油 $\Delta 44.5\%$, 철강재 $\Delta 35.4\%$, 화학제품 $\Delta 30.0\%$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3월중 전체수입은 전년동월의 130.6억 달러에 비해 무려 35.9%나 감소한 83.7억 달러에 그쳤다

3. 지역별 수출입

3월중 지역별 수출을 보면, 對先進國 수출은 12.9%로서 미국 및 EU지역의 호조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對開途國 수출

品 目 別 輸 入 (通關基準, 억달러, 前年同期對比, %)

	97. 3月		97. 1~3月		98. 2月		3月p _j		98. 1~3月p _j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食料 및 消費財	13.9	4.1	40.1	5.3	7.6	$\Delta 36.7$	8.5	$\Delta 39.0$	23.4	$\Delta 41.6$
穀 物	2.1	$\Delta 21.2$	6.2	$\Delta 16.9$	2.0	$\Delta 0.8$	2.0	$\Delta 0.6$	6.0	$\Delta 2.6$
直接消費財	4.0	6.7	11.7	4.9	2.3	$\Delta 34.9$	2.3	$\Delta 43.2$	6.9	$\Delta 41.3$
非耐久財	2.8	11.5	7.9	10.3	1.1	$\Delta 58.1$	1.1	$\Delta 62.2$	3.1	$\Delta 61.0$
耐久財	5.0	12.5	14.4	16.0	2.2	$\Delta 43.0$	3.1	$\Delta 38.3$	7.5	$\Delta 48.0$
原料 및 燃料	69.3	18.5	201.1	8.7	42.5	$\Delta 33.2$	45.0	$\Delta 35.1$	130.6	$\Delta 35.0$
原 油	17.3	150.8	52.3	67.4	10.0	$\Delta 41.5$	9.6	$\Delta 44.5$	33.0	$\Delta 36.9$
石油製品	3.1	$\Delta 18.3$	10.7	$\Delta 27.4$	2.5	$\Delta 24.0$	2.3	$\Delta 28.1$	7.6	$\Delta 28.8$
輕工業原料	4.7	$\Delta 15.4$	13.7	$\Delta 12.5$	3.0	$\Delta 27.1$	3.1	$\Delta 33.8$	8.6	$\Delta 37.1$
化學製品	7.8	7.2	21.4	3.0	5.4	$\Delta 19.0$	5.4	$\Delta 30.0$	15.5	$\Delta 27.4$
鐵 鋼 材	4.6	$\Delta 26.0$	13.5	$\Delta 26.2$	3.2	$\Delta 26.9$	3.0	$\Delta 35.4$	9.5	$\Delta 29.6$
資 本 財	47.3	$\Delta 4.4$	129.3	$\Delta 3.2$	30.0	$\Delta 23.6$	30.3	$\Delta 36.0$	85.1	$\Delta 34.2$
機 械 類	17.6	$\Delta 20.0$	49.2	$\Delta 13.8$	8.2	$\Delta 46.2$	8.7	$\Delta 50.5$	24.6	$\Delta 50.1$
電氣·電子	19.4	5.9	55.2	11.6	15.3	$\Delta 10.1$	16.5	$\Delta 14.8$	45.1	$\Delta 18.2$
輸送裝備	4.4	43.6	8.3	$\Delta 27.0$	3.2	66.3	1.8	$\Delta 59.3$	6.2	$\Delta 25.5$
總 計	130.6	7.6	370.5	3.9	80.1	$\Delta 30.3$	83.7	$\Delta 35.9$	239.1	$\Delta 35.5$

註: 관세청 분류기준에 의한.

은 1.5%로서 동남아와 중국 등의 부진으로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대선진국 수출에서는 對美 수출(14.0%) 및 對EU 수출(10.3%)이 금속제품, 반도체, 화공품 등 중화학공업제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對日 수출은 23.4%로서 일본의 內需不振과 엔貨 弱勢의 영향 등으로 감소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대개도국 수출에 있어서 對중국 수출(△0.8%)은 지난 2월의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다시 反轉되었고 동남아국가의 수출(△16.9%)은 전월의 감소세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는 동남아 外換危機의 영향으로 섬유제품 등 경공업제품과 기계류 등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對中東 수출 및 對中南美 수출은 각각 63.4%, 30.9%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선박 등 중화학공업 제품에서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월중 지역별 수입을 보면 대선진국 수입(△34.5%)은 미국, 일본, EU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대개도국 수입도 △37.9%로서 東歐를 제외한 중동, 동남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진국 수입에서는 對美(△37.8%), 對日(△36.7%), 對EU(△36.3%) 등과 같이 이들 지역으로 부터의 수입이 모두 자본재, 소비재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대개도국 수입에서는 대동남아(△32.6%), 對中國(△34.1%)수입이 원자재,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며, 대중동 수입(△39.7%)은 油價下落에 따라 原油를 중심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3월중 輸出入差는 대선진국 수출입차가 3.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前月에 이어 黑字勢가 지속되었고, 대개도국 수출입차도 흑자규모가 전월의 21.4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 33.5억 달러를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37.1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地域別 輸出入
(通關基準, 억달러, 前年同期對比 %)

		97.3月	97.1~3月	98.2月	3月p	98.1~3p
對先進國	輸 出	49.5	128.5	57.8	55.8	158.5
	(增減率)	(△7.8)	(△14.6)	(44.3)	(12.9)	(23.3)
	輸 入	80.2	221.3	46.8	52.5	139.8
	(增減率)	(△4.9)	(△5.1)	(△30.8)	(△34.5)	(△36.8)
輸出入差		△30.7	△92.8	11.0	3.4	18.6
美 國	輸 出	17.3	45.4	16.7	19.7	51.8
	(增減率)	(△12.6)	(△22.2)	(17.7)	(14.0)	(14.3)
	輸 入	29.4	76.2	15.6	18.3	48.4
	(增減率)	(△2.1)	(△7.5)	(△29.9)	(△37.8)	(△36.5)
輸出入差		△12.0	△30.8	1.1	1.5	3.4
日 本	輸 出	13.9	36.3	10.8	10.6	30.7
	(增減率)	(△0.4)	(△9.3)	(△2.9)	(△23.4)	(△15.4)
	輸 入	24.7	69.7	14.3	15.6	41.9
	(增減率)	(△9.6)	(△5.1)	(△36.1)	(△36.7)	(△39.9)
輸出入差		△10.9	△33.4	△3.5	△5.0	△11.2
E U	輸 出	13.2	33.7	15.2	14.5	41.2
	(增減率)	(△20.3)	(△22.0)	(47.8)	(10.3)	(22.2)
	輸 入	16.0	46.1	10.7	10.2	29.8
	(增減率)	(△6.0)	(△4.8)	(△20.2)	(△36.3)	(△35.4)
輸出入差		△2.8	△12.4	4.5	4.3	11.4
對開途國	輸 出	63.8	168.7	54.7	64.7	164.7
	(增減率)	(0.9)	(2.6)	(2.1)	(1.5)	(2.4)
	輸 入	50.4	149.2	33.3	31.3	99.4
	(增減率)	(36.1)	(20.9)	(△29.6)	(△37.9)	(△33.4)
輸出入差		13.4	19.5	21.4	33.5	65.4
東 南 亞	輸 出	32.0	85.8	25.0	26.6	72.5
	(增減率)	(2.1)	(1.3)	(△6.8)	(△16.9)	(△15.5)
	輸 入	14.7	43.5	9.7	9.9	30.0
	(增減率)	(18.9)	(13.4)	(△29.0)	(△32.6)	(△30.9)
輸出入差		17.3	42.4	15.3	16.7	42.5
中 國	輸 出	11.6	30.0	10.0	11.5	29.6
	(增減率)	(20.0)	(24.5)	(10.9)	(△0.8)	(△1.5)
	輸 入	8.2	22.7	6.1	5.4	17.0
	(增減率)	(27.1)	(17.6)	(△4.3)	(△34.1)	(△25.4)
輸出入差		3.4	7.3	3.9	6.1	12.6

대선진국 交易에서는 對美 및 對EU 수출의

증가에 지속과 수입의 대폭적인 감소 영향으로 각각 1.5억불, 4.3억불의 흑자를 이루었고, 對日交易에서는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赤字幅이 크게 축소되어 5.0억불의 赤字를 보였다.

대개도국 交易에서는 對中東 수입이 原油價 하락으로 감소하여 적자폭이 크게 줄어든 1.9억불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대동남아 交易에서는 수출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16.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4. 국제수지(國際收支)

금년 3월중 우리나라의 經常收支는 37.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97년 11월이후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무역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商品收支는 수출이 중화학공업제품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다소 증가한 반면, 수입에 있어서는 소비재, 자본재, 원자재 등, 거의 전 부문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월의 38.5억 달러에 이어 3월에도 37.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서비스收支는 무역 및 仲介관련 수수료 등의 支給增加로 기타 서비스 收支赤字가 확대되었으나, 運輸收支가 수입감소로 因한 貨物運賃의 지급감소 등으로 黑字幅이 늘어나고 旅行收支도 흑자를 나타내는 등, 黑字規模가 前月の 3천만불보다 다소 증가한 4천만 불을 기록하였다.

所得收支는 對外 이자지급의 증가로 4.1억 불의 적자를 나타냈으며, 經常移轉 收支는 海外僑胞의 국내송금이 크게 늘어난데 비하여 內國人的 海外送金은 줄어 3.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자본수지는 전월의 3.2억달러에 이어 3월에도 10.2억달러의 流入超가 되었는데,

經常收支 (억달러)

	97. 3月	97.1~3月	98. 2月pJ	3月pJ	98.1~3月pJ
經常收支	△18.1	△73.0	39.4	37.0	106.9
商品收支	△13.1	△55.3	38.5	37.7	96.7
輸出(FOB)	116.1	310.5	114.4	119.9	329.2
輸入(FOB)	129.2	365.8	75.9	82.2	232.5
서비스收支	△1.5	△12.3	0.3	0.4	5.7
收入	22.2	59.2	18.7	21.8	62.8
支給	23.6	71.5	18.4	21.3	57.1
所得收支	△3.6	△5.0	△2.8	△4.1	△7.2
收入	3.6	10.1	3.0	3.5	10.2
支給	7.2	15.1	5.8	7.6	17.4
經常移轉收支	△0.0	△0.4	3.4	3.0	11.8

資本收支 (억달러)

	97. 3月	97.1~3月	98. 2月pJ	98. 3月pJ	98.1~3月pJ
資本收支(A+B)	27.0	54.0	3.2	10.2	13.9
A. 投資收支	27.7	55.8	3.2	10.3	14.1
直接投資	△2.0	△5.2	△1.3	△2.2	△4.3
證券投資	17.4	25.6	22.1	13.6	43.0
其他投資	12.2	35.4	△17.6	△1.2	△24.6
資産(內國人投資)	△14.4	△20.0	△3.5	△9.0	△8.1
直接投資	△4.2	△11.0	△3.1	△3.6	△7.9
證券投資	4.4	△3.1	3.4	6.7	14.3
其他投資	△14.6	△6.0	△3.8	△12.1	△14.5
(貨出)	△8.1	△3.6	△2.1	△10.3	△16.1
負債(外國人投資)	42.1	75.8	6.7	19.3	22.2
直接投資	2.2	5.8	1.8	1.5	3.7
證券投資	13.1	28.7	18.7	6.9	28.7
(外國人株式資金)	△2.9	2.3	15.3	5.1	29.6
其他投資	26.8	41.3	△13.8	11.0	△10.2
(借入)	16.8	21.9	2.4	25.2	31.7
B. 其他資本收支	△0.6	△1.8	△0.0	△0.1	△0.2

이는 내국인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와 금융기관의 海外外貨 貸出로 크게 늘어나 유입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公共借款導入과 금융기관의 短期 借入이 크게 증가하여 유입초가 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